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동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착수

정읍시는 산외면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산외면 동곡리 일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비가 내릴 때마다 지방 하천인 동곡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과 배수 불량으로 저지대 가옥, 농경지, 도로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 동곡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역 주민과 편입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은 2026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교량제거설 5개소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 위생 점검

부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여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115개소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축산물 위생(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위해사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생 점검과 함께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한 관련 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고창군, 군민 만족도 93% 이상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올해부터 시행한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7월부터 한 달간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군민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군민들은 “사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최종 선정되지 못하면서 허탈감이 컸

는데, 서류 간소화로 상실감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바쁜 영농철 복잡하고 방대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태블릿PC를 활용한 신청서류 전자화와 △서류간소화 행정서비스 시행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는 관례적으로 제출했던 보조사

업 포기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생략했다. 행정진전망 확인 가능한 서류는 사업 부서에서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자체 확인과 첨부토록 하여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군은 현재 농업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소화 제도를 행정 보조사업 전 분야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농업인과 사업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창업농 백규남씨 생산 멜론, 가락시장 전국 최고가 낙찰

고창군, 첫 경매 4수 8kg 1박스 기준 최고가 5만2000원 기록... 올 8월 출하된 멜론 중 최고

멜론농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된 고창군 청년창업농인 백규남(38)씨가 생산한 멜론이 전국 최고가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락시장 멜론 경매에서 청년농업인 백규남(고창읍·38)씨가 생산한 멜론이 전국 최고 가격에 낙찰됐다.

백씨는 이날 첫 경매가 4수 8kg 1박스 기준으로 최고가 5만2000원을 기록하며 올 8월 출하된 멜론 중 최고 경매가를 기록했다.

백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다 2022년 고창군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대상자로 선정돼 고창으로 전입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초기진입하는 청년농업인들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의 청년농업인 현장 실습형 컨



설팅의 결과로 청년들의 재배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되어 가고 있다.

백규남씨는 “연고도 없이 홀로 농업을 하다보니 재배기술의 미흡으로 막막했는데 재배하고 있는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해를 거듭해 고창에 진입하는 청년농업경영인들의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한영석발효연구소 백수환동주, 최고 약·청주로 등극

정읍 한영석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가 2024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약·청주 부문 대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 술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이다.

이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가 주최하며, 해마다 전국의 전통주 명인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395개의 제품이 출품, 주류 전문가와 전문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6개 부문에서 18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한영석발효연구소가 출품한 ‘백수환동주’는 약·청주 부문서 대상을 차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백수환동주’는 맑은 물과 찹쌀 한

영석 명인이 직접 디딘 누룩으로 빚어낸 프리미엄 약주로 과거 문헌을 존중하면서도 명인의 손길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술맛은 입에 머금었을 때 삼키기 아까울 정도로 깊고 보약의 맛을 지향하며,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백수환동주’는 상급뿐만 아니라 바이어 초청 시음회,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인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그간 쌓아온 실력 아낌없이 펼치길”

정읍시, 도민체전 출정식... ‘최고의 성적’ 다짐

정읍시는 지난 28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정읍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250여 명의 선수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출정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박일 시의회 의장 최용훈 교육장 최규철 시체육회장 등이 함께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열악한 환경과 무더위 속에서도 대회 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회 마지

막 날까지 참가 선수 모두 안전사고 없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전지훈련 및 전국규모 대회 개최 등 시민 여러분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질 높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체육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

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37개 종목에 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고창군이 지난 30일 저녁 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결단식을 열었다.

이날 결단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군의회 의장, 윤병준 국회의원,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과 선수 및 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보고를 시작으로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순창군 일원에서 ‘행복 담은 순창에서

함께 여는 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으로 3일간 펼쳐지며, 고창군은 36개 종목에 선수 568명, 감독·코치 75명 총 641명이 출전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온 우리군 선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가선수단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도민체전 출정식... 우승 결의

부안군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앞서 최근 참가를 알리며 우승 결의를 위한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다.

순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4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총 39개 종목을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군별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오후 6시 부안군(컨벤션)에서 열린 출정식에서는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박병래 의장, 진

동일 부안군체육회장 종목별 선수와 임원 등 110여 명이 참석 선수단에 대한 격려와 함께 도민체전 우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부안군은 36개 종목에 657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종합 6위(군부 2위)를 노리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선수과 임원 모두가 부안군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부안군의 위상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